

30여 회원 17번째 3천배 기도

신행현장

삼천사 부부불자회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석가 모니불, 석가모니불

9월 22일 저녁 7시 서울 북한산 삼천사 법당. 지도법사 동욱 스님의 지도에 따라 삼천사부부불자회(회장 김봉소) 회원 30여명이 일념으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죽비소리에 맞춰 3천배 기도를 시작한다.

회원들의 이마에는 금 새 땀방울이 맺고, 그럴수록 커지는 정근소리는 깊어가는 산사의 적막을 깨운다. 다음날 아침 5시, 북한산 자락에 새벽이 밝아오고, 3천배 기도를 마친 부부불자 회원들은 몸을 잘 가누지는 못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눈빛만큼은 살아서 움직인다.

곧이어 아침예불과 울력을 마친 회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0시 30분 정기 부부불자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한 달간 아침마다 108배 기도를 하면서 정성들여 온가죽이 모아온 보시금을 모인 총무에게 전달했다. 어린 자녀가 보시했음직한 100원짜리 동전부터 1만 원권 지폐까지 많은 금액이 보시함에 쌓였다. 이 보시금은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 전달할 예정이 라고 한다.

법회를 마친 회원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삼천사 사회복지법인인

덕원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센터로 향했다.

2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만큼 치매노인센터에 도착한 부부불자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남녀 회원들로 나뉘어 할머니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가 노인들과 산책을 하며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목욕실로 가서 한 주일간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주

매일 108배-보시 생활화

정기법회후 봉사활동

"부부는 삶과 신행 동반"

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94년 삼천사 북한산 등산모임으로 출발한 부부불자회는 한동안 회원이 1백여쌍이 참가하는 사찰 내 거대 조직이었다. 하지만 법회와 등산만으로는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부부불자회는 지난해 5월 '불자들이 개개인이 신행을 증진하여 사회에 회향하는 불교를 구현해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직을 전면 신행활동 위주로 개편했다. 곧바로



삼천사 부부불자회 회원들이 3천배 기도정근을 하고있다.

1천일 기도정진을 발원하고, 매일 아침 가정에서 108배 기도와 보시를 생활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17개월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진행한 부부들의 아침기도는 가정에서 불국토를 만드는 뒷받침이 되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각자 마련한 보시금을 정성껏 모으고 보니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자식들에게 보시행이 현지를 저절로 터득하게 하는 무언의 가르침이 됐다고 말한다.

또 매일 첫째 셋째 일요일 정기법회에서 1080배기도와 인덕원 봉사활동, 마지막 주 토요일 3000배 철야기도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3000배 철야기도는 벌써 17회를 맞았다.

불 가을에는 전국의 명산대찰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도법회도 개

최하고 있다.

안희찬 총무(48, 공무원)는 "부부가 동반이 되어 수행위주로 살다보니 자연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며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고 만고진리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고 피력했다.

김봉소 회장(53)은 "치매노인들을 목욕시키다보면 결국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생로병사'의 진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며 "앞으로 부부가 함께 신행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을 더 많이 가입시켜 함께 수행하고 싶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도법사 동욱스님(설법연구원장)은 "부부불자들이 신행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사찰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보시는相 널 일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

대승불교의 핵심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法)이건 물질이건 간에 모든 것을 중생의 바른 이익을 위해서 나누는 일입니다. 육바라밀의 제1바라밀이 베푸는 것인데 이것의 전제가 서지 않고서는 제2, 제3 바라밀의 실현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승의 발심은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그 지혜마저 나누는 것이 대승적인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공성을 체득하는데 있습니다. 깨달음의 체험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요인이란 바로, 내에 대한 집착과 그로인해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내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생의 삶 살려면

집착과 욕망 버려야"

이기심의 집착으로부터 떠나 이타적인 상생의 삶을 살자 한다면 나누는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최초의 수행이며 최후에까지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보시는 수행이며, 베푸는 일은 자비의 사회화이며,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어서 업의 장애를 녹여 선주(善由)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인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이나 정신의 속성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 될 수도 없으며 영원하지 않은 인연기멸의 법칙 속에 머무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본래 공한 것인데 그 여타 존재도 똑같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데,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격히 말해서 내 것이 될 수 없고 또한 내 곁에 머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닐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수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그것들과 만나고 헤어지는데 나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쁜 곳으로 세상 중생들이 헤로움을 보는 쪽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이는 또한 방생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상내고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당연히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이들이 보살이고 부처님이듯이, 이 분들이 행하는 행이 모두 인간 특수성이 아니라 본래 보편성을 알아야 합니다. 베푸는 것은 인간 본래 모습이며 이를 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는 욕망 때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베푸는 이유는 받는 이나, 주는 이, 그 베푸는 물질을나 정신이 모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데 있습니다.

무주상보시의 수혜자는 법을 듣건 재시를 받건 환화와 감사로 행복할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나은 곳으로 가게 되고 주는 이도 또한 상없이 주면 그는 욕심을 떨게 되고 주변에 선연(善緣)들이 많이 모여 그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나 물질적 에너지이건 그것이 좋은 일에 쓰이고, 중생의 삶은 번거롭지 않게 하는 데 쓰인다면 아마도 물질이나 정신공해들도 없어 질 것입니다.

이제는 불교가 본연의 대승적 발심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불교 본연이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 기분으로 느끼는 화려한 속에서 그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늘과 나눈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닐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수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그것들과 만나고 헤어지는데 나

신행 캘린더

10월 5일(금)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축제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6일까지 안국역 및 대학로 일대에서 '너희가 우리를 아느냐'를 주제로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펼친다. 합합공연, 가요제, 거리청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02)739-9501

목판인경 체험=청주 청원 불교연합회는 21일까지 청주시가 주최하는 200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직지'를 비롯한 반야심경, 달마도 등의 목판 및 인경 체험장을 운영한다. (043)259-4926

10월 6일(토)

도영스님 초청법회=전북 김제 흥복사는 경내 코스모스 광장에서 도영스님 초청법회와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명선 출제 성공 기원 및 코스모스 축제를 희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063)545-2662

공불련 창립1주년 기념법회=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는 7일까지 해인사에서 전국 104개 단체 2천여 불자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11)210-2082

대구 관음사철야기도=관음사는 7일까지 철야정진기도를 마련한다. 경내 적멸보궁에서 실시되는 철야정진기도는 다라니 독송,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053)474-8228

10월 7일(일)

도선국사 성보관 개관법회=전남 영암 도갑사는 도선국사 성보관 개관법회를 봉행하고, 개관 기념행사로 부처님 진신사리 천경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061)473-5121

분당 대광사 대불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봉안=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오전 9시30분 대불보전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031)715-3000

10월 10일(수)

인환스님 선강좌=국회회는 종로구 수송동 원안빌딩 3층에서 오후 7시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초청, 선사상 대강좌를 개최한다. (02)730-1249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16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제7회 회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52명이 모두 1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백운사 큰스님초청 무차대법회=부산 해운대 백운사는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30분 큰스님 초청 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051)542-4630

생활속의 불교

팔자 고치는 길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내가 되받지 않는다면 누가 받을 것인가.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내 집을 내가 지지 않았다면 누가 대신 지 줄 것인가.

대신 받 먹어 주고 대신 잡자 줄 수 없듯이, 대신 풍누고 대신 아플 수 없듯이 내 집을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한 치의 예누리가 없는 법칙이다.

누가 대신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아무리 관세를 보살을 찾고, 아무리 다라니를 외어도 자작자수(自作自受)의 법칙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집을 덮어 주고 싶어도, 아니면 더 보태 주고 싶어도 약속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고로 지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들,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솟아나는 일체의 일들, 사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 인연인가 내가 지었던 모든 행위들의 결과이다.

인과의 씨앗은 썩지 않는다. 고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짓고 받는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고(苦)라고 단언하셨지만, 아울러 고의 멸도(滅道)를 가르쳐 주셨다. 해탈의 길, 열반의 길도 몸소 보여 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고 보여 주신 길은 완전한 자유,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경계가 마음에 들

면 그것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고통이라면 하루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경계의 참된 원인을 살펴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실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고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는 한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른 고가 닥쳐 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인생이 고해라지만 동시에 나를 제도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은 마냥 고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고다, 임보다, 운명이다 하기 이전에 일체 경계를 놓고 관하는 수행에 전념할 일이다. ■龍眼

경계 살리기 천일기도(千日祈禱) 회향(回向) 및 만등법회(萬燈法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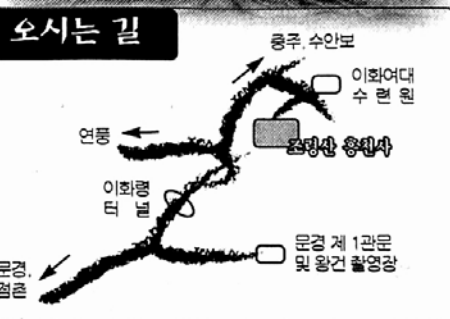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法)이 아무리 좋지만 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使命)이요 책임(責任)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業)에 절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에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의 광명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 수 없으며 철혹처럼 캄캄한 생사의 거센 물결을 건너감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彼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밝혀 짙은 업을 참회하고 쌓여있는 더러운 업을 분살라 다음 생애는 보살의 육도(六道) 만행(萬行)을 닦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는 홍원(弘願)을 한층 굳히기 위하여 우리 흥천사(興天寺)에서는 경계 살리기 및 가정 성불(成佛)을 위한 천일기도 회향 날에 만등(萬燈)불사(佛事)의 넓은 문을 열어 놓고 자타(自他)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아(自我) 진아(眞我)를 깨치고자 하는 이는 광명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愛情)의 등을,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容恕)의 등을, 소외(疎外)된 이에게는 관심(關心)의 등을,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快癒)의 등을, 조상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밝혀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고 가정마다 지극한 서원(誓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흥천사 만등법회

- 주 최 : 조령산 흥천사 신도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흥천사
- 진 행 :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산 스님의 4명
- 1인1등 : 1만원
- 전 화 : 조령산 흥천사 043-833-6640, 833-5525
- 대 구 포교원 053-635-5932
- 스님 휴대폰 011-503-9737
- 계 좌 : 15008-51-001366 농협
- 예금주 : 흥천사(동봉)



문경새재 조령산 흥천사 조실 동봉(東奉) 합장